

## 경북푸드로 수출 10억달러 시대 연다

농식품 경쟁력 육성 326억 투입  
제조가공시설 구축, 수출량 양성  
전통주 등 지역 식문화 보존 '힘'  
부가가치 제고·수출확대 효과  
브랜드 인지도 UP... 시장 선도

경북도는 한류 붐 확산에 따라 K-푸드 선도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제조·가공업 집중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경북도 올해 투자 규모는 326억원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74억원,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 138억원, 전통식품·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14억원

을 지원하는 등 가공산업을 통해 농업대체환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제조·가공 시설 구축 사업'은 지난해 대비 2.6배 늘어난 24개소 174억원 규모로 △농식품 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4개소에 75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8개소에 77억원 △반가공품 생산을 촉진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2개소에 22억원을 지원한다.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 육성 사업'은 총 138억원 규모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지

원' 53개소 62억원 △안전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지원' 49억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14억원 △FDA 등 해외인증 취득, 해외상설관매장 운영 등에 1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약재배 확대, 지역 식문화 보존을 위한 '전통식품·전통주 경쟁력 강화' 지원액은 14억원 규모로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23개소 7억5000만원 △전통주 세계화·고급화를 위한 '안동소주 세계화' 2억5000만원 △전통식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10개소 3억7000만원 등 3개 분야 20여

개 사업에 326억원을 투자한다.

도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수(2022년 말 기준)는 2730개소로 2020년 대비 21.8% 증가했고 매출액은 3조9406억원으로 60.8% 증가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억3314만 달러(1조2200억원)로 10년간 약 3.4배 늘어나는 성장세(2013년 2억7222만달러)를 나타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대체환을 추진 중"이라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K-경북푸드 해외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10억달러 달성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대구 중구 청라언덕에서 열린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한 1000여명의 시민이 3·1만세운동길을 따라 행진하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뉴스1

## 경북 'APEC 경주 유치' 역량 총동원

경북 유치 추진 TF회의 열여 공모 철저 대비  
개최지역 발전·인근과 동반성장 기회 마련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 추진 TF회의'를 개최하고 APEC 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TF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부단장은 국제관계대사, 총괄실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맡고 있으며 외교통상과, 대변인, 정책기획관, 관광정책과,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APEC 개최 도시 선정 시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비롯해 대정

부 대응계획, 대내외 집중 홍보방안 등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열리며 외교부는 국내 개최 도시를 올해 상반기 내로 결정한다. 현재 경주시,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등 4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

경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시한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가치'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또한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신라시대의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며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km 이내에는 회의 시설, 숙박시설이 집중돼 있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선정됐으며 이미 지난 2012년 APEC교육장관회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APEC정상회의 개최로 경주가 동북아시아 최대·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근 도시인 포항, 구미, 경산 등 경북지역에도 신산업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경북은 유치 공모에 철저히 대비, 정부와 정치권에 APEC 경주 유치 필요성을 지속 전달하고 설득해 반드시 경주가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지역 대학 8곳 글로벌대학 도전... 대구, 지원사격 본격화

관련 15개 부서로 지원단 구성  
신청 대학 개별 컨설팅 등 일조

대구시는 교육부가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발 빠르게 구성해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신청 대상 대학 166곳 중 65%인 108곳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1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대구보건대 등 4곳이 신청했으나 아쉽게 글로벌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는 경북대, 대구교대를 비롯해

계명대(계명문화대와 통합신청),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영남대와 통합신청) 등 대구 지역 8곳이 글로벌대학에 도전장을 내민다.

따라서 시는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이 발표되자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은 다음달 신설되는 대학정책국의 국장을 단장으로

미래혁신성장실 8개 부서를 비롯한 15개 부서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이 주축이 되며 지난달 29일 1차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글로벌대학 지정 공동 대응을 위해 시, 대학,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청대학 개별 컨설팅은 물론 대구시 발전 전략 및 지역산업 성장계획과 연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글로벌대학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실현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안동시  
CHANGE & INNOVATION  
2023 안동시 승격 60주년

##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도민복지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최우선'

소관 조례안 4건 심의·의결...박승직·박순범·김창기·허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거안정·재산권 보호 기반 마련 소방훈련·교육 필요 사항 규정, 급식환경 개선 지원 박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경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

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4·10총선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4곳' 확정

영양·울진 등 광역의원 2곳  
김천 나·의성 다동 기초 2곳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역 내에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영양군과 울진군 등 광역의원 2곳, 김천시 나선거구와 의성군 다선거구 기초의원 2곳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이틀 간이며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국힘 '임종득' 영주·봉화·영양 선거구 공천

단수 추천으로 공천권 확보

지난 2일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를 포함 수도권과 강원, 광주, 전남, 전북권의 19곳을 단수 추천지역으로 확정했다.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박형수 현의원의 지역구 이동에 국민의힘 공천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국힘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임종득 예비후보가 이날 국민의힘 단수 후보로 공천권을 확보하면서 고지에 한 발 다가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앙당 승인을 거쳐 주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황재선 개혁신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아직 확실한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영주·봉화·영양' 지역 선거구는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 도내 시·군의회 의장, 경북 남부지역 상생 발전 '머리 맞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구미 개최 상호협력·교류로 지방시대 선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홍보 '힘'

2024. 2. 29. (목)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미시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구미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월례회는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 경북도 내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남부 11개 시·군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회 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주찬 의장은 "조국 근대화와 대한

민국의 눈부신 성장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녹아있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며 "각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상호협력과 적

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북 남부 11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

성된 협의체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ub0104@hanmail.net

## 청송군의회, 270회 임시회 폐회... 9일간 여정

2023회계년도 세입·출결산위 선임

청송군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심사에 이은 의결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회기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 '청송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2건이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태준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준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새로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철저히 가려내 군민이 바라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 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시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연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 ◆ 산업단지 확정측량
- ◆ 구획정리 사업지구 확정측량
- ◆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및 준공현황측량
- ◆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 ◆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 TK신공항 성공적 건설 위해 산·학·연 전문가 ‘한자리’

도,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입주기업 중심 맞춤형 산단 조성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  
핵심 발굴과제 정책화 추진 집중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대구경북공항공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 수립을 위한 '2023년 대구경북공항공 워킹그룹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공항공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다.

지난해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가 신설돼 항공 물류·운송·항공 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등 5개 분과 43명 전문가로 구성해 차별화된 특화 전략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의 전세훈 경북개발공사실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공과 연계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비용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항공산업과 물류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공과 연계한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항공 MRO·제조 분과의 윤대식 교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종합 테스트 베드 구축,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의 항공전자분야 안정성 인증센터 경북 분원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문화 분과위원장 김시범 교수는 관광·전시 인프라 조성 및 MICE 글로벌 전문가 유치·발굴·육성을 통해 경북의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 농식품·바이오 분과위원장은 경북지역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의 수출물류 거점센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북물류진흥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남역 본부장은 "워킹그룹 제안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해 페

멕스, STX,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굴지의 기업들과의 MOU 5건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워킹그룹에서는 발굴과제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정책화되도록 공항본부 실무팀과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돼 경북공항공 시대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통합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

경북도는 4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13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은 도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체 사회사업자인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추진하고 있다.

무상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통합복지카드(통합료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다. 단 기존에 감면 단말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경북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역 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관련 서류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일반형 단말기도 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 시 이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교육청, 미래교육 비전 찾기 '합심'

교육부·전남도·전남교육청과  
2024 글로벌 박람회 공동 주최  
인재 키우는 세계교육 표준 창출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도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교육 정주 실현과 글로벌 인재 키우는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석학, 교육행정 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이 참가해 글로벌 미래교육 글로벌 미래교육은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 지역,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의 비전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람회는 개폐회식을 비롯한 공식



행사와 토머스 프레이 교수, 폴 킴 교수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미래교육 콘퍼런스, 교육부, 시·도 교육청, 글로벌 기업, 25개 국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전시관, 실제 수업 현장을 볼 수 있는 글로벌 미래 교실, 각종 문화 예술교류와 축제로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미래 교실 △경북교육관 △희망포럼 등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태·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북교육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교육이 되고 이웃 나라와의 나눔에도 소홀하지 않으며 나아가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봉화 한국펫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도전

도교육청-지·산·학 업무협약식  
반려동물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에 있는 한국펫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위한 반려동물 분야 지·산·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교육부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추후 오는 2027년까지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학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4-5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기준은 △교육플랜 40점 △거버넌스 40점 △인프라 10점 △기초사항 10점 등으로 4개 항목에 대해 심사

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45억원 지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 중등 직업 교육 국가기초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재정 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협약식에는 △최선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 △김철순 경북도청 동물방역과장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김강희 봉화군의회 의장, 공공기관, 대학교, 관련 기관, 반려동물 산업체 등 총 60여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반려동물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한국펫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다면 향후 글로벌 K-PET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고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에서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농기원, 병해충 예찰단 운영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 총력

경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지난해 지속된 강우와 무더운 날씨로 복숭아 탄저병, 심식나방 등이 급속하게 발생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올해는 '복숭아 병해충 예찰단' 활동을 강화해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 영천, 경산 등 9개 시·군의 복숭아 선도 농가 35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단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열어 올해 예찰 계획과 예찰 요령 등을 설명했다.

복숭아 병해충 예찰단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10월 간격으로 예찰 트랩 등을 이용해 심식나방 등 병해충 발생 양상을 조사하고 복숭아연구소는 예찰단으로부터 수집된 예찰 정보를 농가와 관련기관에 SNS와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병해충 예보시스템 앱을 활용해 온도, 습도, 누적 강수량 등을 지역별로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가에 주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미리 알려 선제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늘봄

🕒 조기퇴근 돌봄	🎒 학교 돌봄	🕒 심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 근로자 임금 보전</li> <li>👉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서비스</li> <li>👉 24시 어린이집</li> <li>👉 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 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3·1운동의 정신으로 대구 개혁 속도 낸다

### 市,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성황 태극기 게양 등 애국 문화 확산 독립유공자 유족 찾아 위문·격려

대구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지난 1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흥준표 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시립교향악단의 현악 9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하공연인 창작뮤지컬 '광야에서 봄을 노래하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를 쓰고 태극기를 흔들고 총을 들었던 이상화와 이육사, 이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몸 던져 싸웠던 의인들을 가슴속에 기리는 이야기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제105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으며 이후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

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180여명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대구시는 제105주년 3·1절과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각 가정, 기업·단체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펼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 및 대구사랑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생계 곤란 손자녀에 대해 위문·격려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를 실시했다.

홍준표 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과 민족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하며 "3·1운동 정신과 이를 계승한 대구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꿈기를 향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선열의 숭고한 희생·애국정신 기리며... 삼일절 기념식 성료

### 주요 기관장·시민 700여명 참석 백역출 외손녀 대통령 표창 수상

경북도는 지난 1일 도청 등극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 경복, 다시 쓰는 미래 경복'을 주제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경 출신의 3·1운동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백역출 선생의 외손녀 정정숙씨(75)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도민과 공무원 10명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만세삼창으로 105년 전 그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한편 3·1절을 맞아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칠곡, 예천, 울진 등 도내 곳곳에서 애국지사 추념식, 만세 재현행사 등 크고 작은 19개 행사가 열렸다.

이 지사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대

한민국이 미래 5000년의 역사도 온전하게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선봉에 섰다"라며 "한 마을이 독립운동을 하고 근면·자조·협동을 통해 '새마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는 '온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제5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 경주썩 찾은 경북청장, 현장 소통의 포문 활짝

### 유공직인 표창·직원 간담회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경주경찰서를 방문해 유공직원을 표창하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기능·세대의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김 청장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철문 청장은 "도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경찰의 자세와 그 요구에 정확하게 응답해 줄 때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런 자세를 통해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경북경찰은 경과와 응답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f12@daum.net

##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19억7천만원

### 영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미세먼지·대기환경 개선 효과 기대

영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올해 총사업비 19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굴착기, 지게차) 차량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을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고령자 등 접수가 힘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이 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부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 안동시장, 시민 건강 위해 동분서주

### 응급의료기관 비상 현장점검

권기창 안동시장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응급의료기관 3곳(경북도안동의료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권 시장은 의료과업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병원과 안동성소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안동시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시의사회 및 지역 내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속해 의료공백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영수 기자toms7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 체계적 복지망 구축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경주' 청사진

### 시, 복지·연금·일자리·주거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안락한 노후 영위 위한 지원폭 ↑

경주시가 전국 최고의 노인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탄한 복지망 구축에 나섰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한 해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과 노인일자리, 고령자 주택,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건강관리사업 등에 주요 점을 두고 보편적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당 연 13만20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용자는 약 4만명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74만4746회를 이용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8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공익활동형(3356명) △사회서비스형(609명) △시장형(271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 5월 103세대 입주자가 완료됐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137세대)은 올 연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90세대)은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설계된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하게 된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상·하반기 수강생 모집으로 취미, 건강, 교양, 정보화 등의 유익한 강좌를 제공한다. 또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바둑·장기실, 도서실의 자율이용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최대 49만2000원을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한다.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에게 손목활동량계,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3곳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자격 기준에 충족한 어르신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낙영 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더욱 확대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공공일자리사업 본격화 시, 공공근로·공동체일자리 대상 6월 30일까지 하루 3~6시간 배치

경주시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들의 소득, 재산상황 및 참여희망 등의 선별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상반기 참여자 82명을 선발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봉사 역사문화관 환경정비 등 환경정화사업(2명)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5명) △경주역 대중교통 안내도우미(2명) 등 총 17개 사업에 29명이 배치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유급 안계담 돌레길 편백나무길 관리(3명) △황리단길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5명) 등 총 11개 사업에 53명이 배치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5000만 시대를 맞아 경주역(KTX역)에 대중교통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버스노선 안내 등의 교통·관광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연령에 따라 1일 3시간부터 6시간까지 상이하다. 급여는 시간당 9860원의 임금과 1일 간식비 5000원,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주낙영 경주시장, IFEA 회원국 사로잡다 “은 가족 행복한 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세계축제도시연맹)

주낙영 시장, 2024년 ‘혁신리더 행정대상’ 수상 쾌거

### 총회 기간 회원도시 일일이 찾아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 전념

주낙영 경주시장이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축제도시연맹(IFEA) 총회에 참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축제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경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피나클 어워드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 참가해 '베스트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태국과 중국, 대만 등 10개국 45개 도시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주 홍보전을 펼쳤다.

특히 주 시장은 지난달 29일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서 '세계유산도시 경주, 축제도시 경주'를 주제로 사례발표에 나서 세계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활용사업 그리고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축제 사례에 대해 유망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사례발표 말미에서 주 시장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



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며 상호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세계축제협회 스티브 우드 슈메이더 회장과 아시아지부 정강환 회장을 비롯해 태국, 중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회원도시들은 물론 한국에서 참가한 천안시, 아산시, 진주시, 익산시, 금산

군, 흥성군, 무주군, 부여군, 광주 동구 등에서 모두 지지 퍼포먼스에 동참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전폭적으로 응원했다.

한편 주 시장은 2박 3일의 콘퍼런스 기간 동안 일일이 회원도시 관계자를 찾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한편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유치 당위성을 호소하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27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혁신리더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부문 혁신리더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주 시장은 지역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주시는 경북도 최초로 어르신 무료택시 제도를 추진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지행복택시 운영을 포함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경로당 정보화 교육,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추진 등은 늘어나는 복지요구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노인비율이 26%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어르신 복지정책에 더욱 힘쓰겠다"며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시,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300만원까지

경주시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맘 흘린 자원봉사자들을 각별히 예우하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우너 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누적 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 가운데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1년 이상 거주한 경주시민으로 봉사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자가 경주시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을 하면 자격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씩 5년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경주자봉.org)를 참고하거나 전화(054-771-1365)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런 사업은 오랜 기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인건 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사용하면 할수록 다다익선 **충전식 카드형 은누리상품권**

**앱(APP) 메인화면에서  
가맹점찾기 클릭해보세요!**

상품권충전, 카드등록도 완료하셨어요?  
이젠 시장에서 카드만 긁으세요!

1. 가맹점 찾기
2. 상품권 충전

**고객 어디서 사용 가능하나요**

현금 없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OK!

**은누리상품권**

- ① 10% 특별할인
- ② 전통시장 소득공제 50%
- ③ 카드사용실적 반영

**전통시장·상점가 쇼핑의 필수템!**  
휴대폰으로 충전하고 내 카드로 결제하는

**은누리상품권 앱(APP) 이용 방법 안내**

**STEP 1. 회원가입**

1. KeyID로 또는 APP Store/Google Play에서 '은누리상품권' 앱 설치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회원가입 진행
3. 은누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 허용
4.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 생일, 성명 입력 후 인증
5. 동선상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6. 인증 결과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7.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인증 진행
8. 본인인증 완료 후, 인증번호 입력

**STEP 2. 계좌등록 및 충전**

1. 은누리 앱에서 계좌등록
2. 은누리 앱에서 계좌등록
3. 계좌등록 완료 후 충전
4. 충전 완료 후 충전금 확인
5. 충전금 확인 후 충전금 사용
6. 충전금 사용 후 충전금 잔액 확인

**STEP 3. 카드등록**

1. 은누리 앱에서 카드등록
2. 은누리 앱에서 카드등록
3. 은누리 앱에서 카드등록

\*설 명절 맞이 은누리상품권 구매안도 변경\*

현행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 **지류형 100만원-할인율 5%, 카드형 150만원-할인율 10%** → **변경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적용기간 2024.1.20~2024.12.31)**  
**지류형 150만원-할인율 5%, 카드형 200만원-할인율 10%**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 뱃살과 헤어질 결심... 건강 생활 습관 만들자

### 구·군 보건소-시민건강놀이터 비만예방의 날맞이 캠페인 전개 시민 대상 운동·영양 상담 나서 비만 인식개선·관리 집중 홍보

대구시는 4일 세계 비만예방의 날을 맞이해 이번 한 달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구·군 보건소와 함께 대시민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지'는 표어 아래 진행되며 일상에서 가볍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며 과도한 나트륨·당·지방 섭취를 줄여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



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뜻하며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성인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비만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구·군 보건소와 시민건강놀이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만 체험, 체성분 측정 및 결과상담, 맞춤형 운동 상담과 식이조절 영양상담 등을 운영하며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 필요성을 집중 홍보 중이다.

특히 시민건강놀이터는 올해부터 3년간 비만 예방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슬기로운 비만관리', '체지방 날

리고 건강 더하는 운동교실' 등을 통해 과체중 및 비만 대상자 관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법으로는 △걷는 시간 늘리기 △충분한 물 마시기 △가공식품보다 채소 및 과일 등 자연식품 섭취하기 △국물은 적게, 소스 따로 먹기 △튀기기보다 삶고, 찌고, 굽는 요리법 활용하기 등이 있다.

강연숙 시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은 평소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일상 속 걷기 생활화부터 음식은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먹는 건강한 생활 실천 전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시체육회 "소통·화합으로 정진" 다짐

### 74개 종목단체 실무자와 워크숍 직무역량 교육 통해 역량강화 '힘'

대구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시체육회관에서 74개 종목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교육과 체육회 주요 현안 논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실무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체육행정 선진화를 위해 △직무역량교육 △회계실무교육 △대구시체육회 주요 사업 설명과 함께 종목단체 건

의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종목단체에서는 △종목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회장선거 절차 및 방법 △보조금 집행, 경산 등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대구체육의 발전방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체육회에 건의했다.

김선욱 사무처장은 "대구체육의 비전목표가 되는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종목단체와 체육회가 소통과 화합해 대구체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군위군, 씨앗마을 넘어 '새싹마을' 2단계 사업 본격 시행

### 마을 리더 대상 워크숍 '성료' 특강 진행·사업 추진상황 보고

대구시 군위군은 지난달 29일 효령면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새싹마을리더, 공무원, 군위군 농촌활력지원센터, 기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형 마을만들기' 새싹마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군위형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형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같은해 3월 73개의 씨앗마을을 선정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후 12월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 대상인 새싹마을 62개를 최종 선정했다.

새싹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앞에 앞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박성제 갈지마을 추진위원장의 마을만들기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장의 군위형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및 일정 보고 △군위군 농촌활력센터



사무국장의 새싹마을 사업추진 세부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해 씨앗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자 올해는 사업추진 체계를 다양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오늘 자리한 마을 리더분들은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시작을 함께한 분들이다. 여러분들

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다음 씨앗마을 리더들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승수기자power5151@naver.com

## 교통공,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우수기관'

### 전국 평균 65.4점 대비 '94.4점' 지역 대학생과 협업 노력 돋보여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개발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전국 46개 지

방기업 평균(65.4점)을 상회하는 94.4점을 획득해 대구지역 내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사는 실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행했다.

특히 지역 내 대학동아리와 협업해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신규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

대구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역안보 상황 점검과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지난달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경북도 두 지역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으며 해마다 양시·도에서 번갈아 주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와 남한과의 관계 단절 시도 등 긴박하고 엄중

한 국내의 상황 속에 민간군경 등 통합방위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논공 '약산온천지구' 30년 만에 해제

### 상·하리 일원 개발 사업 추진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논공을 상·하리 일원에 지정했던 약산온천지구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전했다.

논공을 상·하리 지역은 지난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999년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됐다. 이에 따라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의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온천해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을 착수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민 수렴의견을 기반으로 대구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마침내 약산 온천지

구가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 논공을 상·하리 지역이 그동안 온천원보호지구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장충찬기자gst3000@naver.com





# ‘독립운동 성지’ 안동, 순국선열의 자취 조명

이상룡·류인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391명 배출 ‘전국 최다’  
105주년 3·1절 기념 도심거리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 진행  
안동시장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 지키고 이어나갈 것”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이름이 익숙한 안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지이자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지난 1894년 7월과 9월 사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의 항일의병인 갑오의병이 현재 안동시청 자리에서 첫 기지를 올렸다. 1894년 6월 21일(양 7월 29일) 일본군이 경북공을 침범해 국권을 무너뜨리는 갑오변란을 일으키자 유생 서상철은 안동 일대에 의병 궤기를 호소하는 ‘호서충의 서상철 포고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9월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왕의 밀령이 전달되자 2000여명의 의병을 모아 일본군 병참부대가 있던 상주 함창의 태봉을 공격했다.

이는 전국 의병항쟁의 시초로서 이후 51년간 이어지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시작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며 이

상룡, 류인식, 김동삼, 이육사, 김시현, 김지섭 등 구국에 헌신한 수많은 순국지사와 독립지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류인식, 김동삼 선생은 이상룡 선생과 함께 지난 1907년 안동에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1910년 8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다음 해인 1911년 초 만주로 망명해 경학사·신흥무관학교·백서농장·서로군정서·한족회 등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류인식 선생은 독립자금을 구하기 위해 1912년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일제에 체포됐으며 이후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총 11책의 역사서인 ‘대동사(大東史)’를 저술하고 조선교육회를 창립, 교육운동에 힘썼다.

이상룡, 김동삼 선생은 1919년 3월



대한독립선언서 대표 39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선포했다.

김동삼 선생은 1923년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 의장으로 활약했으며 2년 뒤인 1925년에는 이상룡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취임했다. 이후 1932년 이상룡 선생은 만 74세로 순국했고 김동삼 선생은 하일빈에서 불참된 뒤 1937년 59세의 나이로 순국한다.

한편 시는 105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시청 내 독립운동기념

석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안동교회를 거쳐 응부공원으로 행진하며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권기창 시장은 “안동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활동이 일어난 곳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지키고 그 뜻과 자취가 앞으로도 이어지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어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 봉화, 이주사회 대비 공교육 혁신 ‘밀그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선정 쾌거  
다중언어 교육 등 베트남벨리 연계  
다문화 포용하는 지역 모델 구축

봉화군이 지난달 28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 8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하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으로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며 군이 속한 관리지역은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

책으로 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봉화군의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역점사업인 K-베트남벨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과 살기 좋은 글로벌 이주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주 사회에 대비한 모두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존성, 다양성, 수월성, 포용성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향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주사회 대비 공존 이해 교육과정 편성과 보육·초·중·고 산립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의식 함양 생태·문화 체험, 다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한국적응지원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잠재적 이주 시민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봉화군은 해마다 교육부에서 30억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관련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지정 등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정취영기자jhy4430@hanmail.net

# 문경 새마을회, 순환 사회 조성 ‘솔선수범’

헌 옷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문경시 새마을회는 지난달 28일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신한국 시장, 황재용 시의회 의장 및 새마을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헌 옷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헌 옷 모으기 경진대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 운동의 일환으로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발생 줄이기(Reduce)의 3R 자원재활용 품 수집 운동을 실시하는 행사로 지역 자원 순환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각 읍·면·동 새마을회

에서 헌 옷을 대대적으로 수거했으며 이날 행사는 50대의 차량에 헌 옷을 가득 싣고 생명살림 실천 결의, 탄소중립·친절운동 캠페인, 헌 옷 계근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새마을회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과 근검·절약정신을 알리고 헌 옷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며 “헌 옷 모으기에 구슬땀을 흘린 새마을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한국 시장은 “앞으로도 자원재활용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문경시 새마을회가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예천문화관광재단 1차 이사회 2024 축제·행사 추진계획 보고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28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예천활축제와 올해 주요 사업들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올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결했다.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날 주간에 개최하는 2024 예천활축제, 곤충&서머페스타, 삼강나루터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비롯해 문화회관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예천문화회관은 올해부터 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김학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뿐만 아니라 예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올해 시행하는 축제·행사 및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백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의성,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산업 활성화 속도낸다

관·산·학 통합시스템 개발 맞춘  
행정·기술 지원 상용화 목표 협력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가시설인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통합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 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구축 실증’을 수행하며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과수 농업의 드론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주)한컴인스페이스, (주)삼정솔루션, (주)유팩에어, (주)나르샤텍이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군과 경원대학교가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한다.



올해 11월까지 실증사업 추진하고 행정·기술·인력 지원, 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관·산·학 추진협의체 운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자체 드론 실증사업 추진, 항공산업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국가시설인 드론비행시험센터 준

공, 가음면 드론스포츠 센터 운영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지난해 의성 공항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역으로 구현됨으로써 이동성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과 연계해 의성군이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 김천복지재단, 시민 체감형 복지 실현 '박차'

###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추경안·정관 개정안 등 3건 심의 희망복지공동체 15곳에 지원금 사업 계획·기간별 최대 7천만원

김천복지재단에서는 지난달 28일 '김천복지재단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1명의 임원이 참여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관 개정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단 운영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사회 시작에 앞서 전 2024년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5개 기관·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 수혜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감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산동 마을복지추진단, 영남정신요양원, (사)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

을 청취하고 이를 재단에 반영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는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억 3000만원의 후원 금액이 모금됐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천형 SOS 긴급지원사업에 67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한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공공이전기관과 MOU(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자의 지정 기탁 의사가 반영된 맞춤형 후원 결연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이용자 편의 및 이동성 증진을 위한 복지 차량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naver.com

# 상주, 돌봄·교육·취업 선순환 체계 만든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 3대 추진전략 10대 중점 과제 구축 공동체 주도·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정부 균형발전 사업인 4대 특구 사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공모 사업에 상주시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선정 현황은 총 31건(선도지역 19건, 관리지역 12건)이며 시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의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상주시에서는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K-상상주도특구'를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학령 인구 감소,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돌봄-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협력 기반 교육공동체·돌봄 체계 활성화 △상주형 교육지원 모델·도입 확산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의 선순환 구조 창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시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주도 교육개혁 및 공교육 경쟁력 확보, 지역인재취업과 거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돌봄·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연계·도입과 미래 교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 고병환 경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해"

### 38회 정기총회... 각계인사 한자리 경제 회복 등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병환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제 38회 정기총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9일 금오산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제 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병환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시장, 권오락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및 지부 의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장세구 시의회 부의장, 김근한 시의원, 도의원 도내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경북도 내 기업 중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안정에 기여한 모범회원사 중 ㈜페트로마인코리아(대표 장성호)를 포함한 5개 기업체가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윤경완 ㈜케이엠 대표를 포함한 1개 기업체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공로패를, 이상호 ㈜기원 대표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장은 배상용 브이엔에스 대표를 비롯 5개 사를 표창, 또한 권용호 ㈜윙폼 이사를 포함한 1개 기업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



회 위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북경총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유관기관 및 모범회원 기업에게 경북경총 감사패 전달 및 도내 유관기관의 감사장과 모범 회원사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병주 ㈜대아산업 이사, 이효주 대구은행 구미영업부 부지점장, 전원상 ㈜태동테크 본부장, 운영한 태산테크 ㈜ 부장, 임병희 ㈜멘델 수석연구원 5명이 경북경영자 총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어 경북경총, 경북상공회의소협회 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경제4단

체가 경북지역 내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열연(주), 동일기업(주), 자화전자(주), ㈜케이티앤지 4개 기업에 클린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2부 행사에서는 지난해 결산 및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심의가 있었다.

김장호 시장은 "기업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경북의 중서부권 일대가 확 달라지는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는 데 구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병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기업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기 위한 정책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내빈 및 회원사 여러분은 경북의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소임을 의연히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익문 기자ub0104@hanmail.net

# 고령 대가야축제의 다채로운 매력 '널리~'

### 관광협, 성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방문해 적극 홍보

(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지난달 27일 2024-2025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고령 대가야축제 홍보를 위해 달성군에 이어 성주군을 찾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홍보는 고령군의 이웃사촌이라 할 수 있는 성주군 다중이용시설(마트, 호텔, 식당, 카페 등)에 방문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2024 고령 대가야축제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갔다.

한 주민은 "고령군관광협의회장님

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꼭 축제장을 방문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현 협의회장은 "2024 고령 대가야축제를 고령군의 이웃사촌인 성주군 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무한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보내주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 칠곡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본격화'

칠곡군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근로자 42명 중 28명이 지난달 29일 입국했다.

이들은 라오스 국적으로 지난해 칠곡군과 라오스 정부와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 입국했으며 입국 후 지역 내 병원에서 마약 검사와 신체검사 등 필수 검사를 받았다.

이후 군에서 개최한 입국 설명회에 참석해 환영행사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및 인권 보호 교육을 받고 농가에 배치했다.

군은 작업복, 구급약 및 간단한 일상

대화, 칠곡군 소개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한국어와 라오스어로 제작해 배포했으며 라오스 결혼이민자를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해 이들의 소통을 돕는다.

김재욱 군수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하고 농가에서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을 준수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적성에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 조방낙지

###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 (주)강산투어

###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 공간종합주방

###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 포항, 책임전담제로 '의료공백 최소화' 사활

대형 5곳-간부 공무원 1:1 매칭  
모니터링·비상시 등 신속 조치  
장상길 부시장, 현장 점검·격려  
"국민 생명·건강 사수 힘 모아"



정부가 보건으로 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최고단계)'으로 격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항지역 의료기관은 원활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는 의료대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병원과 시 간부 공무원을 1대 1 매칭하는 책임전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의료과업 확대 및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내 대형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 장상길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간부 공무원 책임전담제를 실시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로사항 청취, 긴급

사항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책임전담관은 전담병원과 상시적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건의사항 청취, 응급실·중환자실 등 비상 진료 상황 확인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게 된다. 책임전담제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장상길 부시장은 지난 29일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 부시장은 포항의료원을 찾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진료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의료원은 정부가 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달 23일부터 평일 2시간 연장 운영, 공휴일·일요일 오전 진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장상길 부시장은 "진료 시간 확대와 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현재 지역 내 의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진료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현기기자hshin98@naver.com

# 울진 "6·25전사자의 잃어버린 가족 찾아요"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 대상  
신원 확인 시 1천만원 포상 지급



울진군은 이달 한달간 지역 민(이장, 단체 등, 평균·10곳, 읍·면)·군(121여단 1대대)과 협업해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2차)'를 시행한다.

6·25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의 8촌 이내 유가족이 대상이며 마을 이장 등 자생조직 및 단체를 통해 마을 방송,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부로 집중 홍보를 한다.

또한 각 읍·면에서는 시료채취 접수·안내 및 제적이 울진군으로 등록된 미수습 전사자 226명의 유가족을 확인하고 읍·면 예비군지휘관은 제적등본 대조로 확인된 유가족으로부터 시료채취를 진행하며 전사자와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함께 유가족 등의 시 현충원에 안장하게 된다.

한편 민간군 협업에 지난 2021년 6월에 처음 시행한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에서는 23명의 유가족 시료채취가 이뤄졌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료 채취가 원활히 이뤄져 6·25전쟁으로 전사하신 분들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편히 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 영천체육회-금호중, 축구 유망주 육성 '한뜻'

영천FC U15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재원 마련, 훈련지·기숙사 제공 등

영천시체육회와 금호중학교가 지역의 축구 유망주 육성과 학교 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9일 금호중학교 교강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영천시체육회 소속 중등부축구단(영천FC U15)의 전방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등부축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영천시체육회에서는 축구단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금호중학교에서는 훈련 장소와 기숙사를 지원하고 방과후 수업을 편성해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울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영천시에서도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중등부축구단이 전

문적인 지도 아래 훈련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체육회 소속 중등부축구단인 영천FC U15는 지난해 3월 창단돼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2명으로 운영 중이며 전국대회 및 중등부 주말리그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 경산시, 재난 국민 생명·재산 보호 '쟁걸음'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경산경찰서장, 경산소방서장 등 1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재난관리실태공시안을 심의했다.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조현일 시장이 위원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재난관리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안전 중 "2024년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산시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대책을 총괄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안전으로 온전한 '숨'이 있는 행복경산을 비전으로 △재난·사고 안전 관리 공통 대책, 풍수해 등 자연 재난 7개 분야 △산불, 범죄, 자살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0개 분야 △안전 문화·교육·훈련 등 7개 분야 등 총 34개 분야에 대해 다뤘다.

또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안전 관리 대책, 재정투자계획,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9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안도 심의했다.

이강학 부시장은 "다양한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영덕,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지원

주택·비주택·지붕개량 175동  
4월 29일까지 행복센터로 접수

영덕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4월

부터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 150동,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20동, 지방개량 5동이며 총 6억674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

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지붕개량 1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상한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며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투기와 매립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ks70@naver.com

# 청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재활교실 '문 활짝'

청도군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재활운동교실'을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지난달 26일(금천면)과 28일(풍각면)에 각각 개강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재활운동교실'은 평소 농부증으로 인한 통증과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주 2회 20회 과정으로 풍각 및 금천보건지소에서 각각 2개 반을 운영한다. 또한 군은 재활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구, 경산 등 원거리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활운동프로그램과 함께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신진대사 증진을 위한 아쿠아 치료, 한의사의 건강상담과 침시술 등 원스톱 재활운동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종길 기자jkk2829@naver.com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 올 봄엔 혜택 팡팡 터지는 영주여행 떠나자~

관광공 선정 '이달 가볼만한 곳' 무섬마을 자전거길 등 5곳 추천 전통 가옥·은빛 백사장 등 눈길 영주목밥 등 떡·즐길 거리 가득

영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가볼만한 곳(영주 무섬마을 자전거길)'과 '3월 여행가는 달(충청경북 미식투어)'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3월 추천 가볼만한 곳의 테마로 '봄날의 자전거 여행'을 선정하고 '영주 무섬마을 자전거길' 등 5곳을 추천했다.

영주 자전거길은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무섬마을 자전거길은 도심에

서 서천의 물길을 따라 무섬마을에 도착하는 3.4구간(약 15.4km)이다.

서천변을 따라 이동하면 조선시대 의국 제민루, 정도전 생가로 알려진 삼판서 고택 등 명소를 만난다.

자전거길 곳곳에 소박한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자전거 전용 택이 이어지고 반짝이는 물길과 은빛 백사장을 감상하다 보면 육지 속 섬마을인 무섬마을에 도착한다. 부드러운 물길에 감싸안은 마을에는 350년이 넘는 만죽재고택을 비롯해 전통 가옥 30여채가 있다.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로 둘러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스며든다.

자전거는 '영주시 자전거공원' 내 공공자전거대여소(054-631-5814)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오후 5시 30분

까지 이용 가능)까지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또한 '여행가는 달'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지자체 및 관광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월엔 여기로(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3만원에 안은 마을에는 350년이 넘는 만죽재고택을 비롯해 전통 가옥 30여채가 있다.

3월엔 여기로 '충북경북 미식투어' 테마로 편성된 영주여행은 '술기로운 여행생활 영주편' 상품이다.

영주여행은 훈연된 맛이 일품인 영주향장살뎡뎡밥과 숨겨진 미식인 영주목밥을 맛보고 한국관광 100선인 부석사 관람과 발효체험학교에서 막걸리 만들

기를 체험하는 당일 기차여행 코스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부터 'KTX-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영주시는 철도를 이용한 당일 여행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영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 홈페이지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영주반딧불관람객, 영주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 무료 지원 등을 꼼꼼히 챙겨 행복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에는 '원당천 벚꽃축제'를, 5월에는 '영주선비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를 개최한다.

'영주의 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로 가득하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 봉화,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확보 '착착'

적기 입국·우수인력 위해 내방 재입국 근로자 가정 등 격려 방문

봉화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기 입국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하남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선발과정을 확인하고 근로자와 면담 및 교육을 통해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성실근로자로 선발된 재입국 근로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수인력이 봉화군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격려했다.

이번 일정에는 공무원과 함께 금동운 군의원, 계절근로자 고용능가 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분국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개선을 통한 노동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 34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오는 4월과 5월에 입국해 고용능가에 배정된다.

또한 라오스 66명, 캄보디아 57명, 결혼이민자 친척 126명 등 총 59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봉화군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 '날을수록 행복한 성주'... 郡, 저출생 위기 극복 전략 모색

TF팀 출범해 분야별 정책 발굴 24시 돌봄 등 체감형 사업 추진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3년 출생자 147명, 사망자 663명으로 사망자가 4.5배가량 많아 인구 테드크로스 현상이 급격히 심해졌으며 학령아동은 전년 대비 46%가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저출생 TF팀을 구성해 성주 맞춤형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발굴하고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미 경북도는 "저출생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본부를 구성해 도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날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를 목표로 4대 핵심 과제와 1 확산운동을 설정하고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 강화 △24시간 안전돌봄체계 구축 △양육비 부담완화·교육정책 △안정적 주거·정착 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또한 발굴된 17건의 사업은 초단기

(3건), 단기(11건), 중장기(3건)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돌봄과 교육 관련 정책(△전 연령 외국어 교육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TF팀 구성을 기점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유관기관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과감한 리모델링과 주민체감형 사업 역시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다.

허윤홍 부군수는 "2025년도 국가 예산 편성의 아젠다는 저출생"이라며 "전 행정력을 저출생 극복에 집중하고 날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 예천, 초·중고 입학준비금으로 가계부담 '뚝'

초등 10만원·중고등 30만원 지원

예천군은 이달부터 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기준일(3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포함)이 돼 있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신청은 3월 입학 이후 지역 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각급 학교(통천풍서초, 풍천중, 풍산중, 풍산고 포함)를 통해 일괄 신청하며 관외 학교 신입생의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달 1일 이후 지역

내로 전입하는 신입생들도 타 시·군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오는 1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을 병행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이소'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오는 4월 이후 상시 활용할 수 있으며 앱 다운로드 후 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증빙지원 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영덕군,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노력

리브투어 운영, 버스 임차비 지원

영덕군은 전통시장의 관광코스화로서 시장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통시장 리브투어를 운영한다. 이에 타 지역 단체관광객들이 영덕군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하

고자 할 경우 관광을 겸해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임차비를 1대당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대상 시장은 영덕·강구·영해 전통시장이며 5일 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대형버스 1대 기준 30명 이상의 인원이 전통시장에 방문해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장

보기 행사를 하면 지원 조건이 된다.

이 밖에도 영덕군은 방문객들의 순조로운 투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 매니저를 도우미로 배치하고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광열 군수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통시장 리브투어 사업을 올해도 시행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리브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군 전통시장 리브투어를 희망하는 30인 이상의 단체는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730-623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철곡, 왜관읍민의 교통 편의성 '확' 높였다

철곡군은 왜관읍민의 숙원사업이자 군수 공약사항인 '왜관읍 순환버스'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왜관읍에는 순환버스가 없어 주민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던 학생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준비하면서 순환버스 운영을 검토했다.

왜관읍 순환버스는 통학 시간에는

유호월드피아, 왜관남부 및 왜관북부 정류장을 지나 석전중학교까지 가는 양방향 통학노선을 운행한다.

통학 시간 이외에는 왜관 북부에서 군립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석전중학교를 경유하는 양방향 순환노선을 운행한다. 통학노선은 등하교 편도 7회, 왜관읍 순환노선은 편도 8회 정도 운행할 예정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 오페라 미리보기 콘서트 ‘프리마 델라 프리마’ 살아있는 파가니니 ‘양인모’ 대구 온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람 전 작품 이해 돕는 프로그램 제공  
7일 오후 7시 30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전석 2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콘서트 프로그램 ‘프리마 델라 프리마’를 준비했다. ‘프리마 델라 프리마(Prima della Prima)’는 이탈리아어로 ‘처음에 앞서(before the first)’라는 의미로 전막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기 전 미리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콘서트 프로그램이다. 이미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인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세기 이상 편성에 진행하고 있는 공연으로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문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올해 들어 새롭게 도입한 관객 친화형 프로그램이다. ▲오페라 공연에 앞서 미리 만나는 ‘맛보기 콘서트’!

‘프리마 델라 프리마’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3월), ‘파우스트’(4월), ‘안드레아 세니에’(5월), ‘헨젤과 그레텔’(8월), ‘라 보엠’(12월) 등 연간 준비된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 오페라 공연에 한 달 정도 앞서 공연되는 콘서트로 오페라 전문가의 작품 해설과 연출자와의 대담, 유명 성악가들의 연주로 구성돼 짧은 시간 내에 오페라 한 편을 속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공연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될 ‘프리마 델라 프리마 I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다. 이번 공연은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진행자이자 해박한 지식과 쉽고 재미있는 진행으로 이름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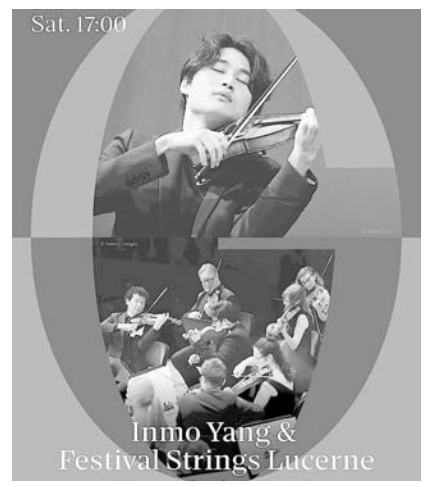
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시작되며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주역인 메조소프라노 김가영, 소프라노 조지영, 소프라노 황진아가 공연 속 주요 아리아들을 피아노 반주로 들려준 후 임숙정 연출가의 작품 컨셉 및 관람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는 오는 28일 ‘프리마 델라 프리마 II -파우스트’다. ‘월간 객석’ 편집장이자 음악평론가인 송현민의 해설과 오페라 ‘파우스트’의 주역 테너 석정엽, 베이스 전태현, 소프라노 김진솔의 연주가 이어지며 이희수 연출가의 작품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 번째 시리즈인 ‘프리마 델라 프리마 III -안드레아 세니에’는 오는 4월 25일 공연되며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이자 평론가인 유윤종의 해설로 진행된다.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주역 테너 윤병길과 소프라노 임세경, 바리톤

최진학의 주요 아리아 연주가 이어진 후 김지영 연출가의 프로덕션 소개를 들 수 있다. 오는 8월과 12월에 각각 공연되는 ‘프리마 델라 프리마 IV -헨젤과 그레텔’, ‘프리마 델라 프리마 V -라 보엠’의 공연내용 및 예매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프리마 델라 프리마’ 시리즈는 전석 2만원에 예매 가능하며 65세 이상 실버 할인과 24세 이하 문화패스 할인, 예술인패스 할인 등 다양한 할인 권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프리마 델라 프리마’ 콘서트 관람 후 오페라를 예매하는 관객에게는 현장에서 3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daeguoperahouse.org),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전화(1661-5946) 예매가 가능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9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협연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협주

‘살아있는 파가니니’라 불리는 ‘양인모’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대표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가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오는 9일 오후 5시에 공연을 올린다.

‘협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양인모는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카네기홀 와일 홀, 보스턴 심포니 홀 등 미국 주요 무대에도 진출해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956년에 창단된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잘츠부르크,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데뷔 무대를 가지며 유망한 실내악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2년부터 함께한 예술감독



‘다니엘 도즈’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헝가리 현악 전용의 고상한 빛과 따뜻함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 양인모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비외탕의 대표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No.5 a단조, Op.37’을 협주할 예정이다. 티켓 구매는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concerthouse.daegu.go.kr)과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 1661-2431)에서 구입 가능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자연으로 빛은 명품 ‘청송백자’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나들이

전시회에서 총 4200여점 작품 선보여 특별 제작 대형 달항아리 ‘눈길’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청송군 대표 전통문화유산 중 하나인 청송백자가 이달 3일까지 열린 2024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을 담은 자연이 빛은 그릇 청송백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송백자 특별전시에는 유명 브랜드 공급 상품, 드라마 협찬 상품, 신제품 등 1년간 준비한 달항아리 외 총 4200점 정도가 전시됐으며 행사기간동안 청송백자 전시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수도권역의 고객층 확대 및 ‘산소카페 청송군’의 문화관광명소, 청송백자 도예촌 등을 함께 홍보해 지역문화관



광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인들의 음식문화 트렌트를 반영한 신제품을 주력으로 버건디 색상의 벽 선반과 모던한 테이블을 활용한 쇼룸과 대형 그릇장으로 구성된 판매 공간으로 나뉘 전시하며 쇼룸 정면에 특

별 제작된 대형 달항아리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경희 이사장은 “청송백자는 오백년 전통의 가치에 현대의 실용미를 더한 디자인으로 청송군 핵심 콘텐츠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해마다 매출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앞으로 주왕산 관광단지를 핵심거점으로 지속적인 고급화 전략 추진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청송백자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2024 원 북 원 포항 올해의 책’... 13일까지 시민 투표 진행

어린이·청소년·일반 후보 12권  
포항시가 ‘2024 원 북 원 포항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달 13일까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7개 시립도서관 원 북 투표코너에서 후보도서

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도서는 앞서 3주간 시민에게 추천받은 70여권의 도서 중에서 1차 원 북 선정위원회의 체계적인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어린이 대상 후보도서는 다행이야(강미야 저), 백오봉, 새 학교에 가다(최소희 저), 옥촌당(고정순 저) △청소년 대상 후보도서는 교묘한 우연(김

수빈 저),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이꽃님 저), 비스킷(김선미 저), 오백년째 열다섯(김혜정 저) △일반 대상 후보도서는 눈부신 안부(백수린 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최은영 저), 위라클(박위 저), 인문 건축 기행(유현준 저), 지구 생물체는 행복하랴(정보라 저) 총 12권이다.

이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약 2주간 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8일 개최되는 2차 원 북 선정위원회를 통해 올해의 책이 최종 선정된다. 올해의 책이 선정되면 이번달 말 원 북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7-8월에는 원 북 공모전,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와의 만남, 원 북 퀴즈왕, 2차 가공 콘서트 제작 공연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현기 기자hshin98@naver.com

# 활력 ‘팍팍’... 우리 마을 문화반장 찾아요!

영주문화관광재단, 18일까지 휴전2동 문화생산 참여자 모집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4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마을형)’의 주축이 될 ‘휴전2동 문화생산자-신(나는)영주 문화반장’(이하 신영주 문화 반장) 참여자를 이번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재단이 지난 5년간 운영했던 사업의 연장선으로 지난 사업이 영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이번 마을형 사업은 앞으로 3년간 휴전2동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사업에서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마을의 문화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사업 1년 차인 올해는 문화마을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휴전2동 마을 조사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할 주민을 발굴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주민 주도형 문화마을 조성의 핵심 동력이 될 주민 발굴 사업인 ‘신영주 문화 반장’은 총 10명 이내로 모집한다. 신청은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



집-알림마당-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재단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선정자는 ‘신영주 문화 반장’으로 임명돼 월 소정의 활동비와 시범사업 기획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재정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화 반장은 지난 1월 위촉된 문화활동가와 함께 상반기 동안 휴전2동 마을 조사 수행과 주민 주도형 사업을 위한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역에 운영하게 된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성주 대가행목적십자회, 식사 나눔



성주군 대가행목적십자회는 지난달 28일 옹골리 지역 어르신 50여명을 초청해 점심 나눔 행사를 했다.

노인 공경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단체에서 손수 만든 찹쌀 수제비를 비롯한 음식들을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정겨운 담소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엄태순 회장은 "주변 이웃들을 위해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대가행목적십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경로당 및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 중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문경, 초청 특강으로 공직 소양 UP



문경시는 지난달 27일 김의진 전 국민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다른 생각, 새로운 문경'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개최했다.

김의진 전 교수는 지난 1990년 스포츠조선에 입사해 스포츠 조선 편집국장,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체육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날 △관광 인프라 구축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략을 제안, 특히 스포츠가 국내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분석하며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국 시장은 "김 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시 차원에서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체육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취업 걱정 없는 구미대 명성 이어 나갈 것"

최규섭 6대 총동창회장 취임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최선'



최규섭 구미대 총동창회장이 지난달 28일 취임했다.

구미대 총동창회는 이날 구미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이재명 회장 이임 및 최규섭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환 총장을 비롯한 류기덕 사회복지학과장, 남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장, 김석호 구미시 관광, 이명희·김영태 시의원, 최재석 4대 총동창회장, 이재명 5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저와 함께 수고해 준 동창회 임원진 여러분들 지난 4년간 수고가 정말 많았고 감사하다"며 "제가 인생 살아오면

서 멘토 역할을 해 준 직전 회장이라면 서 고문인 최재석 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최규섭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구미대 총장은 "최규섭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5만 3000여명의 구미대 총동창회와 구미대

가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구미대가 개교한 지 32년이 지나가는 동안 대학의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했다. 총동창회와 대학은 영원히 하나다. 우리 모두 월팀이 돼 동창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규섭 신임 회장은 "구미대는 취업 걱정 없는 대학 5년 연속 취업을 1

위에 선정됐다. 오랜 전통과 젊은이들의 꿈이 있는 구미대 총동창회장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미대 5만3000여명의 동문을 대표해 우리 구미대와 힘을 합해 지역사회는 물론 대학들이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학교와 동창회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확고한 터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대가 잘 승계되도록 헌신하고 수고해 준 구미대 총동창회 제4대 최재석 회장을 비롯 제5대 이재명 회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구미대 명성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6대 동창회에서 더욱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의문 기자ub0104@hanmail.net

## 大地震 피해 지역민의 빠른 일상 복귀 희망

한수원, 성금 5000만원 현지 전달 호쿠리쿠 지역 조속한 복구 힘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달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호쿠리쿠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지난달 29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윤상

조 그린사업본부장은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전달한 이번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호쿠리쿠 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 예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 조성 '힘'



예천군은 지난달 29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과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표창했다.

군은 최근 3년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지방세정확증에 기여한 법인 1

개소와 군 행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마을세무사 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담당자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개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 청송읍 자율방범대,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청송읍 자율방범대는 지난달 26일 청송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과 라면(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기부 받은 물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김성태 대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움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범죄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송읍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의 야간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행사 시 다양한 질서유지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꾸준한 성금 및 물품 전달과 다양한 지역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동 정

시다국어 의료지원서비스 MOU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다국어 의료지원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동 행사성사업 시민평가단 발대식



권기창 안동시장은 5일 시청 청백실에서 열리는 안동시 행사성사업 시민평가단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기념식 참석



최기문 영천시장은 4일 오후 3시 엑스코서 열리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및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현장 점검



윤경희 청송군수는 4일 분철 산별 예방을 위해 각 읍·면을 방문하고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우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남철 고령군수는 4일 오전 11시 고령성주축협서 열리는 한우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관계자 노고를 격려한다.

영덕교육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영덕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학교안전 현장점검 주간을 운영했다.

학생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총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모든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장 및 간부 공무원이 시설 노후도, 안전사고 피해 가능성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 위주로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윤인한 교육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 안전과 학교 시설 안전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및 관계자 모두 철저한 관리 및 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영덕교육지원청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365일 안전한 영덕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주관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 2024 경주문화유산해설사교육

**수강생모집**

운영기간 2024년 3월 7일 ~ 6월 27일(매주 목 / 16주)  
수강료 100,000원  
계좌번호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문의점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구분	시간	강의장소
오전반	10:00~12:00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저녁반	19:00~21:00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 01 신라의 통일과 화랑

날짜	세부 주제	강사
3월 07일(목)	신라의 통일과 화랑	주보돈 교수 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제12대 경북대 박물관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월 14일(목)	진통왕	
3월 21일(목)	김춘추	
3월 28일(목)	김유신	

### 02 신라의 불교 공예

날짜	세부 주제	강사
4월 04일(목)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와 선택여왕	한정호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박물관 전임연구원 전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연구원
4월 11일(목)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4월 18일(목)	전 황복사지 석탑과 나원리 석탑의 사리장엄구	
4월 25일(목)	불국사 석탑의 사리장엄구	

### 03 신라의 석조 미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02일(목)	석탑 1	신용철 관장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출신박물관 운영위원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5월 09일(목)	석탑 2	
5월 16일(목)	승탑	
5월 23일(목)	당간지주와 석등	

### 04 유학의 역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30일(목)	금오산에 깃든 신라문화	오상욱 원장 경북고전번역연구원 부산대 강의 교수
6월 13일(목)	운곡서원에서 회재학을 익히다	
6월 20일(목)	원사정재와 유학의 계승	
6월 27일(목)	경주유람기로 읽는 문화유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사)전국한우협회의성군 지부가 지난달 27일 한우협회 정기총회를 맞아 지역사회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의성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호식 지부장은 "경제 불안정, 사료값 급등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부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의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집중'



의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용굴삭기, 트랙터·승용관리기 2개 과정을 24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해마다 농기계 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현저해지고 있어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용이 빈번한 임대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방법을 교육하며 실습위주로 추진된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장비는 트랙터 등 총 48종 810대이며 특히 농용굴삭기, 트랙터·승용관리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임대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농기계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 조작 미숙, 교통법규 위반 등이 주요 사고 유형이므로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적인 안전교육으로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 및 정비요령을 확산시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칠곡 여단협, 새마음 새출발로 한 해 '도약'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임원진 선출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14개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계 및 결산보고, 올해 당면 현안 논의, 회칙 개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칠곡군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강영미 소비자교육중앙회장이 선임됐으며 신임 임원진도 함께 구성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임기 만료로 임하는 서경희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아이코리아)과 오미숙 회장(여성이용소방대), 김향숙 회장(송죽복지회)에게는 감사장과 축하 꽃을 전달했다.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태풍 피해복

구 봉사, 무료급식 봉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바자회, 노년기 남성 요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등 나눔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여성단체의 화합과 협의회 활동을 더욱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송홍달기자song031700@naver.com

영주제일고, 트랙 靑주니어선수권 '3관왕'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성적을 거뒀다.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한 2학년 박준선 선수는 단체 스프린트 부문에서 1위, 스프린트 부문에서 1위, 1KM 독주 경기에서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으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박준선 선수는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독님과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강호 교장은 "박준선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



문경 외식업중앙회, 안전 먹거리 제공 '앞장'



문경시는 지난달 28일 뮤지엄웨딩에서 제30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지부장 장재봉)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 대의원과 내빈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한 영업주 1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회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주)금복주를 비롯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서 기탁했으며 회원 자녀 중 모범 학생 14명에게 총 700만원이 전달됐다.

또한 전달식 이후에는 친절서비스의 자발적 실천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다 함께 낭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세현기자hyun0085@daum.net

김천여단협, 행복한 지역 만들기 '솔선수범'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청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혜영 회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나눔 기부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살피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의 소

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기탁에 함께 힘을 보태준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소중한 마음을 전달받아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금광수기자kgs5149@naver.com

진병길 회장 "국가유산 인재 육성"

진병길(사진) 신라문화원 원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동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진병길 회장은 국가유산 전환 체제 변화 속에서 국가유산 활용분야의 위상 확보와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신라문화원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진병길 신임 회장은 "연합회와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분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산 활용의 국민 향유권 증진과 더불어 국가유산 활용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는 연합회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울진교육청, 기록물관리 교육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8일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기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2024년 제1차 기록관리 교육' 연수는 청내 직원들의 기록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원문공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고자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2024년 제1차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에서 기록물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노환기자shghks70@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공정의 힘! **Yes 문경**





자작나무숲

# 주민과 함께 만들어 지키는 '청송 명품산림'

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위한 올해 정책 방향 발표  
34억6200만원 투입, 조림 37ha·숯가꾸기 1450ha 시행  
유아숲체험원, 우수 자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  
꽃구경하기 좋은 청송정원, 꽃양귀비·백일홍 등 활짝

**청**송군은 맑은 공기와 울창한 산림의 이미지를 표현한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을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2024년 산림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을 위해 다양한 나무를 심고 체계적인 숲의 기능 및 연령별 체계적인 숯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 34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37ha와 숯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산불예방숯가꾸기 등) 1450ha를 시행해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읍·면 주요 공한지에 청송을 대표하는 소나무 및 왕벚나무 등 우수 수목을 식재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소각산물 저감을 목표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진화헬기 단독 입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등 가용 인원을 활용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작전을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송의 아름다운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 등을 통해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사업 등을 시행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생활권재해 위험입목을 제거 또는 정비하는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내 65본의 보호수와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수의 살군처리, 외과수술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주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휴양 문화의 가치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임업 교육으로 청송군 산림산업 발전과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송임산물대학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임산물대학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2023년까지 40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50여명을 선발·교육해 임가소득 및 전문임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지역 내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금 제도를 통

해 2023년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 189명, 6억9800만원의 소득을 보전했고 올해에도 홍보와 지도교육 등을 통해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산림의 달성을 위해 산림휴양 시설 확충, 유아숲 체험원 운영,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청송자연휴양림 내에 지난 2021년부터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동 및 일반교양 도서 1000여권을 비치하는 등 휴양림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청정 자연 속에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 철거하고 숲속의 집 1, 2호를 재건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산림복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 유아들에게 청송 유아숲체험원에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창의적인 사고 배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전환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부남면 화장리 자작나무숲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휴양·치유·여가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명품 산림 조성하고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 청송솔빛정원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꽃길과 각종 화단을 조성해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파천면 신기리 일대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화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지역 도시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은 힐링 공간이 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지난 2021년 시범단지 개장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장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2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등 청송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꽃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동시에 최근에는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눈도 즐겁고 맑은 산소를 맡으며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힐링 명소로, 관광 명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5월에는 꽃양귀비단지, 9월에는 백일홍정원을 운영하는 등 계절별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유치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쉼' 그리고 '힐링'의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산림의 경제화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가꾸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지키는 청송군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유아숲 체험원



숯가꾸기 사업



청송임산물대학



생활권재해 위험입목 제거



산소카페 청송정원



칼럼

###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노년은 고집스럽고 폐쇄적이 되기 쉽다. 나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부연 설명이 많아지고 자기 말만 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며 자기의 관점으로 젊은 사람을 보면 늘 성에 차지 않는다.

수년 전의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수년 동안 줄곧 노인이 젊은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노년의 관점으로 젊은이를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개구리 울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다.

옛날과 달리 얼마나 좋게 변했는가? 디지털 기기를 익히면 SNS에서 친구를 만나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세계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심지어 대화 상대도 된다. 몇 걸음 걷지 않아도 카페가 있어 좋은 음악과 차를 만끽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누려야 한다.

셋째 주는 노년이 된다.

노년은 아무래도 받는 입장이 되기 쉽다. 사회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양보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이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 받으려고만 하게 된다. 심지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노년이 되면 결국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 노년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넉넉한 사람은 돈을 줄 수도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주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된다. 자원봉사는 보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미국노년자협회(AARP)는 케치프레이즈가 ‘봉사를 받지 말고, 봉사를 하자’임을

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절을 아는 노년이다.

이 항목은 김동배 교수의 3가지 제안에 필자가 덧붙이는 부분이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사 회수가 줄어들다. 꼬마일 때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초등학교까지 지속되지만 중학교를 넘어서면 점차 줄어들고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무뚝뚝한 얼굴로 인사를 대신한다.

가뜩이나 살이 처지면서 표정이 무뚝뚝해지는 데 내버려두면 남이 보기에 화난사람처럼 된다. 밝은 표정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것이다.

말을 하대하면서 훈계를 하고 나무라는 것을 지하철에서 자주 본다. 이전에는 자식도 성인이 되면 하대하지 않는데 생면부지의 젊은 사람을 나무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들 변명하는 데 자식처럼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을 만나면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겠는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은퇴 교육 과정에 디지털 교육과 함께 예절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노년을 위한 현대식 예절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이 됐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넘는 초고령사회가 온다. 오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900만명이 되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온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사회도 아름다워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독립적인 노년, 열린 노년, 주는 노년, 예절을 아는 노년’ 이 넷을 잘 지켜 아름다운 노년이 됐으면 한다. 뉴스

멋있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김동배 교수가 쓴 ‘신노년문화’에서 실마리를 발견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을 만큼 잘 정리돼 있다.

필자는 하나만 덧붙여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4가지를 적어 본다.

첫째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년이 된다.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가 나이 많은 환자와 얘기할 때 애에게 이야기하듯 말하는 걸 자주 본다.

노년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립하려는 노력 없이 의존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나이 들었으니 의존해도 되겠지’라는 마음 자체를 품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경제적, 육체적 의존이다.

경제적인 문제야말로 죽을 때까지 독립적이여야 한다. 축적해 둔 자산을 양도하면 자신의 가치도 사라지면서 주체성을 잃고 의존적이 된다.

노후의 돈 관리를 잘 배워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을 지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본인이 싫든 좋든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돈관리와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둘째 열린 노년이 된다.

독자기고

### 3·1절을 기념하며

이용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까지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1919년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철저한 무단 강압 정책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됐다.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자 독립운동을 체계화 및 조직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돼 독립운동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순국선열들을 추모, 애도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은 3·1절을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비쁘게 돌아가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3·1절을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30일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보문단지에서 ‘벚꽃길 걸어서 독립속으로’라는 독립문화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경주벚꽃축제와 연계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기억-체험-감사의 어울림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이 기념행사를 통해 3·1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3·1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기념행사를 통해 3·1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사설

### 의사 총궐기에 제약 영업사원 동원 논란

대통령실은 3일 의료계 총궐기와 관련해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업경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 어떤 불법적 행위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 글이 퍼졌다.

해당 게시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도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불법이 확인되거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약업계도 전날 대응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체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참여해 회사와 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회사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철저히 조치하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환자들은 누구 편을 들기 조심스럽고 그저 원만히 합의됐으면 한다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의사들의 행동에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박 성 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 제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 경 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밤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 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 자동차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5m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횡단보도 정지선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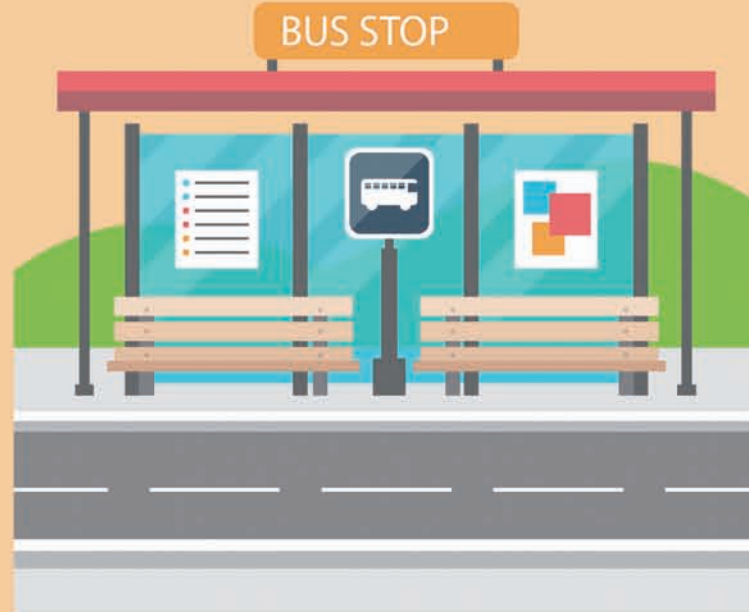
### 교차로 모퉁이 5m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